

EAI 여론브리핑 제31호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제7차 글로벌/지역 리더십의 공백 신뢰한다, 반기문 35%, 후진타오 32%, 부시 23%

대표집필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참여국가 : 20개국]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스페인 프랑스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북남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동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20개국 19,751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 조사일시 : 각 국 조사 2008년 1월~4월/ 한국조사 “한국리서치”(2월)

[발표 주제]

1. 국제사회 이끌 지도자가 없다, 반기문 신뢰 35%로 가장 높아
2. 아시아의 리더십 경쟁

[발표계획]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3월 8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20일	인권2. 중국의 티베트 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2일	인권3.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4차	4월 21일	현안1. 오일쇼크의 위협	국제유가 폭등
5차	5월 2일	인권4.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의 날
6차	5월 13일	현안2.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여론/ 거버넌스 인식 비교
7차	6월 16일	현안3. 세계지도자 신뢰도	글로벌/지역 지도자 신뢰도 평가
8차	미정	인권4. 낙태/이혼녀 문제	6월 23일 국제 미망인의 날
9차	미정	인권5. 정부의 고문 인식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 (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층화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성별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연 구 팀 :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부소장)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 연구지원 : Lisa Collins(EAI 인턴) Matt Lauer(EAI 인턴)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I. 세계 리더십의 공백

□ 세계 리더십의 공백상태 : 신뢰받는 지도자가 없다

- 세계인 67%, 미국인 56% 부시 신뢰 못해, 대안도 없어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신뢰 한다 35%”로 가장 높아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무대에서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리더십이 분쟁 조정 및 해결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리더십의 공백은 사소한 국가 간 갈등이 심각한 국제분쟁으로 비화되거나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개국 19,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리더십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미국 부시대통령, 영국 고든 수장,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 러시아 푸틴 전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파키스탄 무사라프 대통령 각각에 대해 세계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8명의 세계 지도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 부시대통령에 대한 세계인의 불신이 두드러진다. 미국 국민을 제외한 19개국의 조사결과를 평균해보면 무려 67%가 부시대통령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이는 현재 핵개발과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나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비율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파키스탄 무사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52%, 54%였다[그림1].

부시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팔레스타인(95%), 이집트(92%), 요르단(88%), 터키(83%) 등의 중동의 회교국가 뿐 아니라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84%), 멕시코(83%) 등에서 특히 높았다. 심각한 것은 영국(77%)과 프랑스(85%) 등 전통적인 서방의 우방국 국민들로부터도 아주 냉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에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미국인조차도 42%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불신한다는 응답은 56%에 달해 부시대통령은 나라 안팎에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중동 분쟁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나 9.11 테러 이후 보여준 미국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세계인의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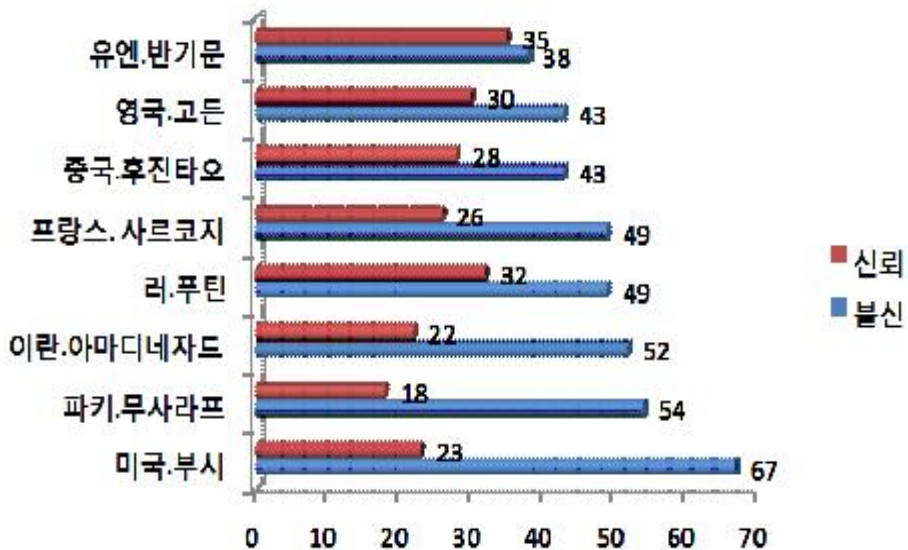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서방세계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각종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불신 응답도 각각 49%

로 나타났다.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블레어 총리의 뒤를 이어 수상으로 선출된 영국 고든 총리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이 각각 43%로서 상대적으로 불신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8%, 고든 총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치고 있어 신뢰할만한 국제분쟁의 조정자로 나서기에는 함량 미달로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UN 사무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이 그마나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35%였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38%였다. 잘 모른겠다는 응답이 27%로 아직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 국제적인 비토여론은 가장 낮지만 국제적 갈등 요인을 중재하고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보다 폭넓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는 테러리즘과 같은 물리적 공포에서부터 천재지변, 환경 문제와 같은 자연의 재앙, 전염병과 같은 질병 문제, 유가폭등 등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뢰할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불신의 대상으로 전략한 부시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새로운 리더십의 구심으로 떠오를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잘하건 못하건 힘의 역학관계상 미국은 세계 리더십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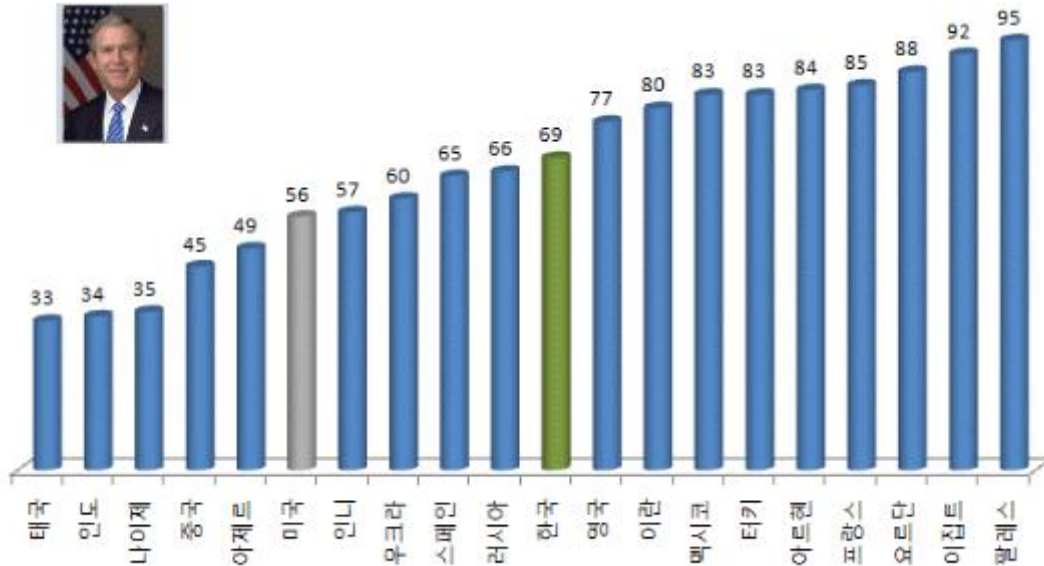
[그림1] 세계 주요 지도자에 대한 19개국 평균 신뢰도(%)



주1. 신뢰비율은 “매우신뢰” 및 “약간신뢰” 응답을 합한 비율이며 불신비율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을 합한 비율이다.

주2. 각 국가지도자의 각 수치는 자기나라 국민의 응답은 제외한 나머지 19개국 국민들의 응답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그림2] 부시 리더십에 대한 불신(%)



II.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십 경쟁

□ 아시아 지역, 부시 상대적 높은 지지, 후진타오 상대적으로 열세

-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부시에 대한 신뢰도가 후진타오 중국 주석보다 높다
- 중국인, 혈맹국 김정일 가장 신뢰. 김정일 57% > 부시 41% > 후쿠다 40%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 경쟁을 벌이는 부시대통령의 경우 세계적 차원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지만 아시아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괜찮다. 특히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경제 강국인 인도와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부시에 대한 우호적 응답이 눈에 띈다. 인도인의 45%가 부시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을 해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35%)이나 후쿠다 일본 총리(32%)에 비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간주 받는 중국의 국민들이 오히려 부시대통령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비율(41%)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 등 세계 시장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서방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 역시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다. 부시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5%로서 인도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후쿠다 총리(30%)나 후진타오 주석(25%)보다 높은 평가를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 대한 리더십이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인에게서만 56%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을 뿐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후진타오 총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아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로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꼽은 응답자가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실의 중국은 경제개방과 국제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지만 국민들 다수의 인식 속에는 냉전시대의 전통적우방국가인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남아있는 결과로 보인다. 최근 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호주의 러드 총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2%로 뒤를 이었다.

□ 한국인, 동맹국 지도자 보다 호주/중국 지도자 선호

러드(호) 61% > 후진타오 56% > 후쿠다 일본 수장 40% > 부시 30%, 김정일 12%

한국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제외하면 미 부시대통령을 신뢰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김정일 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2%로 가장 낮았고 부시대통령이 30%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반일감정 하에서도 후쿠다 일본총리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이 40%로서 이전 수상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 비교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 국민들이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지도자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들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동아시아 무대가 특정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전략 대신 다양한 국가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복합적인 외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 잡고 있는 호주등과의 관계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나 러드 호주 수상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신뢰감을 보인 것은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와 우호적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3] 아시아 주요국 지도자에 대한 아시아인의 신뢰 평가(%)

	부시	후진타오	후쿠다	김정일	러드(호주)
한국인	30	56	40	12	61
중국인	41	93	40	57	52
인니인	28	27	43	28	31
태국인	34	25	30	21	23
인도인	45	32	30	21	19